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CNN Business: 골드만삭스, “미국 경제 침체 거의 없을 것”
- Bloomberg: 연준, 향후 금리 인하 경로에 주목
- CNBC: 오늘 연준 결정에서 기대할 내용은?

[미국 생활]

- WSJ: 미국 더 이상 ‘상위 20개 행복한 국가’에 포함되지 않는다

[주택]

- CNBC: 주간 주택 모기지 수요 감소... 연준 발표 주시

[에너지]

- CNBC: 2050년까지 글로벌 에너지 수요가 인구 성장을 앞지른다

[인공지능]

- Bloomberg: 에너지 산업에서 AI 역할 부상
- WSJ: Apple, AI 활용 위해 외부 파트너 찾는다
- Bloomberg: IBM, 4년만에 최고의 랠리 기록... 올해 전망 밝아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WSJ: Intel, 미 반도체 공장 지원금 85억 달러 받는다
- WSJ: 대량 해고를 피하는 전략을 선택한 회사의 전략 스토리
- Bloomberg: 제트블루, 수익성 낮은 노선 줄인다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CNN Business: The US economy is nowhere near a recession, Goldman Sachs' top economist says

골드만삭스, “미국 경제 침체 거의 없을 것”

- “한때 연준 입장에서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연착륙은 잘 진행되고 있다”
- 골드만삭스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Jan Hatzius는 “확실히 미국 경제는 침체에 거의 근접하지 않을 것 같다”고 자신감을 보였다.
- 그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중요한 점은 비즈니스 활동이 크게 위축되지 않고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라 설명했다.

CNN Business 기사

Bloomberg: Fed to Give Fresh Clues on Path of Interest-Rate Cuts **연준, 향후 금리 인하 경로에 주목**

- 연준은 오늘 오후 회의에서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. 실업률이 서서히 상승하는 점을 주목하면서 강한 인플레이 현상을 지켜보고 있다.
- 오늘 오후에 기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이며 금리에 대한 결정과 경제 전망에 대해 오늘 오후 2시 발표할 예정이다.
- 쉽사리 금리 인하를 발표하지 않겠지만 최근 2년 동안 실업률이 상승한 점 때문에 물가와 노동 시장 두가지 측면 모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.
- 블룸버그 뉴스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 전문가는 연준 정책 결정자들이 6월을 시작으로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보며 이러한 입장은 현재 시장에 반영된 상태. 물론 응답자 3분의 1 이상은 2차례 이하의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. 미니애폴리스 연방중앙은행 총재는 한두차례 인하로 전망을 낮추었다.

Bloomberg 기사

CNBC: Here's everything to expect from the Federal Reserve's policy meeting Wednesday 오늘 연준 결정에서 기대할 내용은?

- 통화 정책을 중립적으로 바꿀 입장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.
- 오늘 회의의 주요 관심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참석자 각자의 금리 전망에 대한 '점토표' 내용이다.
- 오늘 연준은 또한 미국 경제에 대한 분기별 업데이트 내용을 발표하게 되며 특히 국민총생산량, 인플레이, 실업률에 대해 발표하게 된다.

CNBC 기사

[미국 생활]

WSJ: U.S. No Longer Ranks Among World's 20 Happiest Countries 미국 더이상 '상위 20개 행복한 국가'에 포함되지 않는다

- 행복한 국가 순위가 글로벌 차원에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올해 처음 들어 더는 '행복한 20대 국가 리스트'에 포함되지 않았다. 주로 젊은 층의 행복도 수준이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.
- 갤럽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에 15위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23위로 떨어졌다. 오히려 코스타리카와 리투아니아가 미국보다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.
-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순위로 나타났고 핀란드가 1위를 기록했다.

WSJ 기사

[주택]

CNBC: Weekly mortgage demand drops as interest rates rise again, but Fed announcement will be key for spring market**주간 주택 모기지 수요 감소... 연준 발표 주시**

- 30년 고정 평균 모기지가 6.97%에서 6.84%로 상승했다.
- 모기지율이 상승하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 건수는 지난주에 1% 하락했다. 작년 같은 주에 비해 14% 감소한 수준.
- 연준의 최근 금리를 발표가 올봄에 모기지 수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.

CNBC 기사

[에너지]

CNBC: Global energy demand will outpace population growth through 2050, Kuwait oil CEO says**2050년까지 글로벌 에너지 수요가 인구 성장을 앞지른다**

- Kuwait Petroleum Corporation에 따르면 오는 2050년까지 글로벌 에너지 수요가 인구 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다.
- S&P 글로벌 에너지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“앞으로 갈수록 세계 인구를 위해 더 많은 에너지 수요가 필요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- 이번 회의에서 오일 수요가 오는 2030년에 최고치에 달할 것이라는 의견이 최대 관심사였다.

CNBC 기사

[인공지능]

Bloomberg: AI Emerges as Next Shiny Thing in the Energy World
에너지 산업에서 AI 역할 부상

- 에너지 산업에서도 'AI'라는 신기술이 활용될 전망이다. .
- 화요일 휴스턴에서 열린 CERAWEEK by S&P Global 컨퍼런스에서 에너지 경영진들은 AI의 잠재력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. 그들은 AI를 통해 탐사, 시추, 펌핑을 개선하고 강력한 새 수요원을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.
- AI는 거의 모든 산업을 재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, 특히 에너지 산업에 특별한 이점을 제공한다. 에너지 산업 자체에 엄청난 양의 전

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. AI는 전력 생산 기업뿐만 아니라, 가스를 시추하는 기업에 고객을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.

Bloomberg 기사

WSJ: Apple Looks to External Partners to Boost AI Efforts Apple, AI 활용 위해 외부 파트너 찾는다

- 애플이 AI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회사들과의 협력을 모색 중이다.
- 관계자들에 따르면, 애플은 구글 및 타 AI 소프트웨어 제공 기업과 아이폰 모바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사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. 애플은 구글 외에도 Cohere와 OpenAI 같은 스타트업 기업과도 대화를 나눴다.
- 어떤 협력이 진행될지, 애플이 한 기업과 배타적 협력을 맺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 보인다.

WSJ 기사

Bloomberg: IBM Rallies Most in Four Years on Rosy Outlook for 2024 IBM, 4년만에 최고의 랠리 기록... 올해 전망 밝아

- IBM이 최근 몇 년간의 미지근한 성장 및 주가 성장률을 극복하고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. 이는 사상 최고치보다 약 6% 낮은 기록으로, 투자자들의 베팅이 마침내 결실을 본 것이다.
- IBM의 주가는 약 19% 상승했다. 매그니피센트 7과 비교했을 때, 엔비디아와 메타 플랫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.
- Nia Impact Capital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Jethro Townsend는 "IBM은 업계의 다른 부분에서 많은 할인을 시행했지만, 클라우드와 AI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, 강력한 AI 사업을 통해 더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."라고 말했다

Bloomberg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WSJ: Intel Gets \$8.5 Billion Award For U.S. Chip-Plant Construction Intel, 미 반도체 공장 지원금 85억 달러 받는다

- 미 정부가 인텔에 최대 85억 달러를 지급한다. 4개 주에 위치한 새로운 반도체 공장 자금 지원을 위한 것이며,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칩 제조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.

- 아리조나, 뉴멕시코, 오하이, 그리고 오리건의 새 공장과 프로젝트 확장에 해당 자금이 사용될 예정이다. 향후 5년간 미 정부의 인텔 총투자액은 1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.
- 2022년 반도체 법에 따라 마련된 해당 보조금은, 코로나 시대의 공급망 중단 및 중국과의 지정학적 긴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제조업 회복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WSJ 기사

WSJ: Deeming Mass Layoffs a 'Failure of Leadership,' One Company Fine-Tunes a Strategy to Avoid Them

대량 해고를 피하는 전략을 선택한 회사의 전략 스토리

- Hologic의 최고 재무 책임자 Karleen Oberton는 코로나 이전에 “대량 해고는 리더십의 실패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”라고 말했다. 해당 철학은 팬데믹 기간 매출이 급격히 하락한 이후 미세 조정되었다.
- 매사추세츠 말버러에 본사를 둔 Hologic의 매니저들은 모든 신규 채용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, 성과급 예산이 증가하지 않도록 직책을 재배치하고, 직원 추가를 상쇄할 절감 방안을 찾아야 했다.
- 최고 경영자 Stephen MacMillan는 “직원이 퇴사한다고 해서 그 자리가 다시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. 매니저는 다른 부서에 해당 직책에 필요한지 물어야 하고, 성과 관리에 철저히 초점을 맞춰야 한다.”고 설명했다.
- Hologic은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직원을 추가하는 검증된 방법으로서의 전환을 통해 팬데믹 기간 동안 직원들의 번아웃을 관리했으며,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유지보수 요청 시기를 예측하여 긴급 호출을 줄이는 등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운영 비용 절감 및 효율성 모색에 노력을 가했다.

WSJ 기사

Bloomberg: JetBlue Cuts Unprofitable Routes in Flight Network Overhaul

제트블루, 수익성 낮은 노선 줄인다

- 이 항공사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의 수익성 낮은 노선을 없애고 남미 주요 도시들의 노선도 중단할 예정이다.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전체 노선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.
- 구체적으로 라스베가스, 마이애미,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해 오는 6월에 로스앤젤레스 국제 공항을 출발하는 노선의 3분의 1을 줄인다. 플로리다와 아틀란타 등을 오가는 노선도 없앤다.

Bloomberg 기사

[보고서]

작아지는 美금리인하 기대..."경제 계속 강하면 2번만 내릴 수도"**채권선물 시장도 연준 매파적 메시지에 대비...연착륙 기대는 높아져 '고금리 불구하고 경제 강한 건 저금리 모기지 받은 이들 때문' 분석도**

19일(이하 현지시간)부터 이틀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정례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올해 경제가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일 경우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가 예상보다 더 적게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.

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은 50% 이상인 것으로 봤다.

미국 CNBC 방송이 경제학자들과 전략가, 펀드매니저 등 27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, 응답자들은 올해에도 연준이 3차례 금리를 내릴 것으로 봤다. 이전 조사와 같은 수준이다. 이 경우 연말 정책금리는 4.6%까지 내려간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offic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ccsend.com